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경필



진도 조상용



합령 김광춘



화순 박순철

순천시, '전남도 최초'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

국내서 15번째...9개 분야 모두 우수 평가



순천시는 8일자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15번째이고, 전남도에서는 최초 공인 획득이다. 순천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위원인 루 파이(Lu Pai 대만) 심사단장과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이 순천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순천시는 총괄보고, 손상 감시체계 등 9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는 국제안전도시 정식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로고 사용을 비롯해 안전도시로서 브랜드 상승효과가 기대되며, 공인 선포식은 다가오는 2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난해 안전 문화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과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 우리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공인 획득을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안전도시 위원회 구성, 기관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2월 6일~7일 이틀 동안

나주사랑상품권 5% 할인...설명절 상권 활성화 촉진

1,473개소 점포 이용 가능

나주시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1월부터 2월까지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시 5%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나주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 광주은행, 신한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직불카드로 액면가 기준 5%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음식점, 의류 판매점, 커피전문점 등 1,473개소 가맹점포에서 이용 가능하다.

나주시는 금년 할인행사의 집중 홍보를 통해 상품권 인지도 향상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증가, 시민들의 소비 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와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기관, 기업, 사회단체와의 나주사랑상품권 이용생생 MOU를 추진, 그동안 총 3회에 걸쳐, 41개소와의 MOU를 체결하며, 상품권 소비 시장 확대에 주력해온 결과 지난 해 누적 판매액 10억 원 을 돌파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세씨는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을 적극 이용해 줄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MOU 체결과 홍보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광양시, 논에 타작물 재배시 ha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쌀 과잉문제 선제적 대응과 고소득 작물 육성 기대

광양시는 올해부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최고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 95ha 감축을 목표로 3억 2천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자격으로는 지난해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로 최소 1,000㎡ 이상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논 타작물 전환한 농지들

소유한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계속 다른 작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인정된다.

다만, 수급불안정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무와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작물별 전환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조사료로 ha당 400만 원, 두류는 28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서류를 작성해 마을대표 확인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많은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새해영농교육,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이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항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조성 완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 사장 방희석)는 자동차 전용부두로 활용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9, 20번 2개 선석의 포장공사가 완료됐다.

공사는 이번 포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7,

18, 19, 20번 4개 선석을 자동차 전용부두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동시에 3만8,000대를 야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동차 환적중심기지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그동안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 4번과 17, 18번 선석 2곳에서 나누어 자동차 부두를 운영해

왔었다.

또한 일원화된 4개 선석을 현대 글로벌스가 전용 사용하게 되며, 연간 130만대 이상의 자동차 환적 물량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포장공사 현장을 시찰한 방희석 사장은 포장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며 "자동차 전용부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순천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

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니 만큼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관내 24개의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전담 창구를 구축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버스정보시스템, SNS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http://jobfunds.or.kr/>)과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올해 60억원 투입...내달 말까지 새끼우렁이 공급 신청



화순군은 올해 친환경농업에 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육성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벼의 경우, 올해 1ha당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0만원, 생산장려금 25만원, 친환경직불제 40만원, 유기농업자재 7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새끼우렁이와 못자리 상토는 일반농업은 70%를 지원하지만 친환경경재는 100% 지원해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일반농업 재배보다 1ha당 235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군은 노령화로 친환경 재배가 어렵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논두렁 제초 및 물 관리를 제외하고는 유기약제 공동방제 등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에 더 효율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오랜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남용에 따른 유기합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변역력 증진과 건강한 땅을 만들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군은 이와 관련, 벼 재배농가의 경우 1월 말까지 상토, 2월말까지 새끼우렁이 공급 신청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